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얼음 깨기

## 반환점

## 교회행사

2024년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기대와 소망이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한 해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간 전반기 돌아보고, 다가올 후반기의 기대와 소망을 나눠보세요.

###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1-22일 유학생 수련회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 7월

- 7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 13-14일 더조이유아유치부여름강화학교
- 20-21일 초등1,2,3부 여름성경학교
- 26-29일 중등,고등부 수련회

## 경배 찬양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떨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선교

## [홍성준 선교사]

### 미국

- 폐허가 되어가는 이 도시가 버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 이 땅의 이민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 이민 땅에서 환경과 물질과 삶에 눌러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이 주신 삶으로 바뀌어 선교하는 삶이 되도록.
-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8600명의 홀리스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 이민와서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가는 사역이 계속 되도록.

## 교회 소식

## 한문장 큰 울림

### 1. 교육부서 여름행사

우리 아이들의 여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여름 행사들이 되도록요.

### 2. 장난감 모집

파송선교사 오경섭, 안병이(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사골에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 선물이 필요합니다.(주보참고)

### 3. 수요일예배 찬양대

신중년들의 찬양대로 구성하려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금주 수요일(7/3)까지 입니다.(신청 및 문의 고영숙 전도사 010-8026-5287)

### 4. 동아리 영춘권 동아리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중학생이상 남녀무관 모집, 홍승원 집사(010-4657-8709)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소정회비 있음)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30분-10시 / 장소: 2층 솔로몬의 지혜

그때 그 장면이 반짝반짝  
그때 그 장소가 반짝반짝  
그때 그 사람이 빛나고  
그때 그 마음 한없이 풍부하니  
오 기억의 빛이여,  
거기 그때의 광원光源,  
지나갔음으로 해서 빛나는 것들이여,  
오 시간의 위엄이여,  
- '시간의 위엄\_정현중 시 중에서 -

##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사도행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다가 지극히 소박한 바울의 셋방 성경 공부 장면으로 종료 됩니다. 바울은 미결수라는 신분과 불확실한 미래, 불편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얻고자 분투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1장과 28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이어져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만 살펴볼도록 하겠습니다.

### 1. 담대하게

**[행28: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의 특징은 “담대하고 거침없이”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담대했을까? 먼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만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을 청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루 종일 강론합니다. 바울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그 지역 사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5-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인용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전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언제나 거절을 받았습니다. 거절 받을수록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매진합니다.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이 선명해지고 단호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져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는 주님의 감동을 꼭 붙잡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취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 2. 거침없이

**[행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유추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에 대해 바울이 가택연금 중임에도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개역한글)”, “아무런 방해 받지 않고(새번역)” 등으로 번역합니다. “방해없이, 자유로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미결수라는 죄수의 신분이었고, 가택연금 형식으로 얽매어 있었으나, 적어도 그를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Preaching)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Teaching).

교회는 바울의 셋방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하나님의 통치하심)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욱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널리 퍼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낮부 끄러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셋방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셋방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 일상에 그 말씀대로 “더욱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셋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목장모임마다 셋방과 같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1] 바울은 가택연금 중인 셋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고, 행하는 교회로서의 삶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 나눔

주일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 사도행전 28:16-31]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